

정훈 시가(詩歌)에 반영된 현실 인식과 문학적 형상 재고

강경호*

1. 문제제기
2. 정훈의 현실 인식과 시가 창작의 의미
3. 인륜(人倫)을 중시한 우국지정(憂國之情)의 표출
4. 출처(出處)의 고민과 우환(迂)의식의 본질
5. 처사(處士)적 삶의 동경과 관념적 자연 인식

【요 약】

수남방옹(水南放翁) 정훈(鄭勳)은 16세기 말~17세기 초의 혼란한 시대를 살다간 향촌사족(鄉村士族)으로, 많은 국문 시가(詩歌) 작품을 남기고 있는 작가이다. 그의 시가 작품들에 대한 최근의 평가는 작품 외적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향촌사족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거나 정계 진출을 목적으로 지어진 다분히 의도적인 산물이라는 시각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견해들은 이 시기 국문시가 작가들의 향촌사족화 과정과 그 현실적 측면을 작품과 밀접하게 연결시켜 그 문학적 성취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작품 문면에 나타난 일차

* 덕성여자대학교 강사

적인 의미와 이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한 궁극적 의도를 충분히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훈의 시가 작품들은 그가 평소에 가졌던 현실에 대한 우환(憂患) 의식과 이를 반영한 창작 의식에서 표출된 문학 작품들로 볼 수 있다. 그는 인륜(人倫)을 중시한 인물로 이를 토대로 ‘우국지정(憂國之情)’의 노래들을 지었고, 당대의 혼란한 정치상과 그로 말미암은 정국의 파행을 밀도 높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지난날 자신의 포부를 펼치지 못해 고뇌하는 향촌사족의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고,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우환(迂闊)하다고 표현하였다. 한편 혼란한 현실을 피해 자연에 귀의한 순수 처사(處士)적 삶을 동경하며 관념적 자연세계를 작품 속에서 그려 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훈의 시가 문학은 혼란한 시대상 속에서 ‘우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향촌사족의 현실 인식과 고뇌가 여러 문학 작품에서 형상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훈의 시가 작품에서, 그 이전 시기 시가 작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문학적 역량이나 또는 그 이후 시기에 전개되는 다채로운 국문 시가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작품의 양상들은 혼란한 시대를 살았던 당대 작가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17세기 시가사(詩歌史)의 경향과 관련지어 그에 맞는 합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문제 제기

수남방옹(水南放翁) 정훈(鄭勳, 1563~1640)은 시조 20수, 가사 5편 등 적지 않은 국문시가 작품을 남기고 있는 작가이다. 그의 행적(行蹟)을 기록하고 있는 『수남방옹유고(水南放翁遺稿)』와 『경주정씨세고(慶州鄭氏世稿)』에 “공(公)의 천성이 진솔하여 시문(詩文)

을 후세에 남기려하지 않았다”라든가 “저술들은 산일(散逸)되어 거의 사라졌다”라는 내용¹⁾이 전하는 것을 보면, 이 외에도 여러 편의 국문시가 작품을 창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경주정씨세고』의 <시류(詩類)>에는 학계에 알려진 시조 작품 외에도 몇 작품이 더 한역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²⁾ 이렇듯 정훈은 17세기 초 많은 국문시가를 창작한 몇 안 되는 작가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의 문학 작품들을 통해 17세기 초 시가사(詩歌史)의 여러 경향들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정훈의 시가(詩歌)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근래에 들어서이다. 박요순, 하성래³⁾에 의해 자료가 소개되면서 주목을 받았고, 정병욱, 김기동⁴⁾은 정훈의 가사 작품이 노계(蘆溪)의 것보다 탁월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처럼 초기 연구에서는 정훈 시가(특히, 가사)의 뛰어난 면에 대해 주로 언급하였고, 그 후 후속 연구⁵⁾에서는 동시대를

- 1) “公平生所著詩文 必不只此 而蓋公天性眞率 不欲以文字傳後世 卽著述或書木葉而投之 或書休紙而棄之”, 『수남방옹유고』.
“翁之所著述散逸殆盡 只歌詞數十首外 又有律絕若干篇”, 박필주(朴弼周), 『수남방옹유고서(水南放翁遺稿序)』, 『수남방옹유고』.
(『수남방옹유고』는 박요순의 「정훈과 그의 시가고」(『송전어문학』제2집, 송전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73)에 영인된 자료를, 『경주정씨세고』는 영인본 『경주정씨세고-八松公派』(정동인 엮음, 회想社, 2002)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였다.)
- 2) 『경주정씨세고』 <시류(詩類)>에는 이미 알려져 있는 시조 작품 2수(<기우인(寄友人)>, <자경(自警)>) 외에 <감회(感懷)> 3수와 <몽주공(夢周公)> 2수, <자경(自警)> 1수가 한역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박요순, 「정훈과 그의 시가고」, 『송전어문학』제2집, 송전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73.
하성래, 「가사문학의 새 거봉」, 『문학사상』8호, 문학사상사, 1973.5.
- 4) 정병욱, 「노계의 가사보다 탁월」; 김기동, 「다시 써야 할 이조문학사」(『문학사상』8호, 문학사상사, 1973.5)
- 5) 나병호, 「정훈·박인로의 시가 대비 연구」, 한남대 석사학위논문, 1989. / 한창훈, 「박인로·정훈 시가의 현실의식과 지향」,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3. / 이문화, 「정훈 시가문학 연구」, 경원대 석사학위논문, 1994.

살아간 노계의 가사 작품들과의 비교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훈의 가사 작품이 노계 가사에 비해 우수하기는 하지만, 이 둘은 공통적으로 체제 긍정적·보수적 성격이 나타나고 문제해결의 측면에서 관념적 성격을 드러내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자기도취 또는 완상의 대상으로서의 자연 발견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현실 비판류 작품의 모태가 된다고 평가되었다.

정훈 시가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향촌사족으로서의 정훈의 삶과 처지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루어졌는데,⁶⁾ 정훈을 향촌에서의 자기 입지를 확고히 하거나 정계 진출을 갈망하는 향반층으로 보고, 그러한 향촌사족의 경향과 삶의 갈등이 그의 문학 작품에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의 시가는 “17세기 사족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남원의 유력 재지사족들과 교유과정에서 지어진”⁷⁾ 다분히 의도적인 산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은 정훈의 시가 문학뿐만 아니라 이 시기 국문 시가 작가들의 향촌사족화 과정과 그 현실적 측면을 작품과 밀접하게 연결시켜 그 문학적 성취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일정정도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지적된 바 있듯이, “이런 해석이 개연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문학작품을 공리적(功利的)인 목적성으로만 볼 필요가 있는가”⁸⁾하는 것이다. 그의 시가 작품을 살펴보면, 당대 정계에 대한 비판을 담아내거나 이에 대한 현실적 고뇌를 드러낸 작품들이 적지 않게 발견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 중에는

6) 이상원, 「정훈 시조 연구」, 『우리어문연구』11집, 우리어문학회, 1997. / 류속영, 「정훈 문학의 현실적 토대와 작가의식」, 『국어국문학』제35집, 1998. / 권순희, 「17세기 남원지방 재지사족의 동향과 정훈의 시가」, 『어문논집』39집, 민족어문학회, 1999. / 이상원, 「사족층의 분화와 정훈의 시가」, 『조선시대 시가사의 구도와 시각』, 보고사, 2004. / 최현재, 「박인로 문학의 현실적 기반과 문학적 지향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7) 권순희, 앞의 논문, 1999, 195쪽.

8) 최상은, 「정훈 가사에 나타난 가문의식과 문학적 형상」, 『한민족어문학』제45집, 한민족어문학회, 2004, 366쪽.

최근 논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창작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을 모두 작가의 특정 목적(정계 진출, 향촌에서의 입지 강화)에 의해 산출된 창작물로 보는 것은 너무나 의도적(?)인 텍스트 읽기가 아닌가 한다. 정훈이 태어난 명종 18년(1563)부터 세상을 떠난 인조 18년(1640)까지의 기간은 우리나라의 역사상 유래 없는 혼란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이 이어졌고, 대내적으로는 사림의 동서(東西) 분당(分黨)과 이후 광해군 대의 대북파의 집권, 인조반정 등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시기였다. 정훈은 이러한 시기를 살다간 인물이며, 그의 문학작품에는 이러한 혼란의 시기를 살다간 당대 향촌사족의 고뇌가 고스란히 배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정훈의 시가 작품들을 공리적 성격의 “특수한 노력의 산물”⁹⁾로 보는 최근의 논의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의 시가 작품들을 재해석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정훈에 대한 여러 문헌 기록들을 토대로 그의 현실 인식을 되짚어보고, 그에게 시가 창작의 의미는 무엇이었으며 또한 이러한 인식들이 그의 문학작품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문학적 형상화를 이루어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16세기 말~17세기 초, 혼란한 시대를 살아갔던 한 향촌사족의 삶과 고민을 그의 문학 작품을 통해 읽어보자는 것이다.

2. 정훈의 현실 인식과 시가 창작의 의미

정훈은 평생 정계(政界)에 진출한 적이 없는 남원의 향촌사족이

9) 이상원, 앞의 논문, 2004, 191쪽.

다. 그가 남원에서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경주정씨세고』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6대조인 정홍덕(鄭弘德) 대에 정치적인 사정(단종 폐위 관련)으로 인해 남원에 하향하였고, 고조 정중형(鄭仲亨) 대에 이르러서는 남원의 향촌사족으로서 완전히 정착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¹⁰⁾ 또한 정중형의 부친인 정유의(鄭由義)가 성종 대에 공조판서(工曹判書)를 지냈고 그의 형인 정숙형(鄭叔亨)이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까지 올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훈의 가문이 남원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관직 진출의 실패나 경제적 몰락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초기 연구에서 정훈을 단순히 경제적으로 몰락한 한미한 향반층으로 본 것은 그의 가문이 조부 대에서부터 특별히 관직에 진출한 적이 없었고, 가사 작품(예를 들면 <탄궁가(嘆窮歌)>)에서 나타나는 가난의 형상이 꺾진하게 그려진 것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정훈은 남원의 유력한 재지사족이었던 최연(崔衍)·최은(崔蘊) 형제, 노형태(盧亨泰)·노형하(盧亨夏) 형제 등 여러 사족들과 교유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또한 병자호란 시에는 향중(鄉中) 사부(士夫)들에게 의병을 일으킬 것을 권유하고 말년에는 남원의 원동향약(原洞鄉約) 중 가장 오래된 원천동안(原泉洞案)의 중수(重修)에 핵심적 역할을 맡는 등 그가 보여줬던 남원 향촌사족으로서의 모습은 역시 단순한 향반층은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¹¹⁾ 이러한 면모를 보여준 그였기에 현실상황을 반영한 그의 시가 작품은 향촌사족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거나 정계 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창작되었다는 것이 최근 논의의 경향

10) 『경주정씨세고』에는 정훈의 선조인 정홍덕, 정숙형 등의 사적(事蹟), 비문(碑文)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남원으로 하향하게 된 계기와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11) 정훈 가문의 재지사족화 과정은 주(註) 6번의 연구들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하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이 연구 성과들을 참조하여 서술하였음을 밝힌다.

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정훈의 시가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그가 처한 현실 상황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가 처했던 현실적 상황이 그대로 그의 문학 작품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이것이 정훈 시가의 문학적 형상의 본질로 평가되는 것은 재고(再考)의 여지가 있다. 당대 정훈이 처했던 현실 상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되는 부분이지만, 정훈이 그러한 처지를 현실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문학 작품에 의도적으로 반영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만약 그가 의도적인 목적을 갖고 행동하였다면 문학 작품이 아닌 보다 더 적극적인 방식의 실용적 글쓰기를 선택했을 것이다.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데 있어 여러 컨텍스트적 맥락은 고려되, 문학 텍스트는 우선 그 본연의 영역으로 환원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작품의 이면(裏面)을 살피기 위해 작품 외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작품의 문면에 나타나는 그 일차적 의미를 충실히 읽어내는 작업과 병행될 때 그 의의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정훈의 시가 작품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그가 어떤 인물이었으며 그가 가졌던 현실 인식은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의 시가 창작 의식을 되짚어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창작 의식이 반영된 그의 시가 작품을 해석하는 데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정훈의 행적을 기록한 『수남방옹유고』의 「가장행적」¹²⁾에는 그의 성품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그가 행했던 효행, 우국충절, 시가 창

12) 『수남방옹유고』와 『경주정씨세고』에는 ‘행장(行狀)’과 같은 「수남방옹가장행적(水南放翁家藏行蹟)」과 「방옹공가장(放翁公家狀)」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두 기록은 몇몇 한자 표기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내용은 박세채(朴世采)가 지은 같은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하 「가장행적」으로 약칭한다.

작에 관한 여러 일화들이 소개되어 있다.

공은 천성이 강직 불굴하고 기개가 있었으며 세상의 그릇됨을 분하게 여길 줄 알았다. 착한 일을 보면 미치지 못하는 듯 하였으며 악한 일은 미워하여 원수와 같이 여겼다. 그리고 남의 이목을 아랑곳 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였다. 남다른 재주를 가진 이가 있으면 아끼고 그 이로움을 장려하였다. 불효하거나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이가 있으면 반드시 불려 인륜을 가르쳤으나 허물을 고치는 자가 드물었으므로 말세가 되어 금수에 가까움을 깊이 탄식하였다.¹³⁾

때로는 노래[歌]와 시[詩]로써 그 정곡[情曲]을 펼쳤으니 세상에 분개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성이 늙을수록 더욱 두터워졌다. 선정[善政]을 들으면 기뻐서 잠도 자지 않고 우두커니 서서 시절이 평온해질 것을 기다렸고, 난정[亂政]을 들으면 성이 나고 분해서 밥도 먹지 않았다.¹⁴⁾

「가장행적」과 같은 기록이 후대에 선인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다 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기록을 통해, 정훈이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이며 효행과 인륜을 중시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다시 말해 우국충절의 절개가 남다른 인물이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외에도 그의 효행에 관한 일화들과 나라를 걱정하고 당시의 정국을 한탄했다는 여러 기록들이 「가장행적」, 「묘갈명」 등에 전해지는데, 이는 그만큼 그가 유교적 근본이념들을 강조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려 한 인물이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기록들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

13) “公天性剛直不屈倜儻慷慨 見善如不及 疾惡如仇讐 高談大論 傍若無人 人有一藝 則好之愛之 勸勵其益 有不孝不弟 則必招其人 爲陳人倫 鮮有改過者 故深歎末世近於禽獸”, 「가장행적」.

14) “時以歌詩以叙其情曲焉 憤世憂國之誠 老以彌篤 如聞喜政 則喜而不寐佇待時平 及聞亂政 則扼腕不食”, 「가장행적」.

던 유교적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륜(人倫)’이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또한 위 기록을 통해 볼 때, 그는 그때그때마다 느끼는 마음 속 심회를 ‘노래와 시’로써 잘 나타냈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세상에 분개하고 나를 걱정하는 정성’이 지극했고 이러한 심회를 시가를 통해 잘 드러냈다는 서술은 그가 지녔던 시가 창작에 대한 면모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가장행적」의 다른 기록들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 동궁전이 북쪽으로 옮겨가고 나라가 휩쓸린다는 것을 듣고 심혼이 정신없는 사람처럼 혼비백산하였고 오직 노래를 부르며 나날을 보냈다. 만력(萬曆) 연간으로부터 돌아가실 때[己卯] 즈음까지 나라를 걱정하고 시대를 탄식하는 가사를 짓지 않음이 없었다.¹⁵⁾

늘 당시의 정치가 잘되고 못됨을 들을 때마다 가사를 지었는데, 하늘을 우러러 흐느껴 울며 몇 수를 길게 불러 그 뜻을 드러내었다.¹⁶⁾

내가 수남방옹 정공 훈이 저술한 가사를 읽고 무릎을 치면서 감탄함을 금치 못하였다. ... 한결같은 마음이 왕실에 있지 않음이 없어서 사물에 접함에 가히 기쁘고 놀라움을 오로지 가사로 나타내었고, 장창(長唱, 가사)과 단요(短謠, 시조)로 부르면서 각각의 정취를 나타내었다.¹⁷⁾

위 기록들을 보면, 나라에 외침이 있거나 우환이 있을 때, 정계

15) “又聞 東殿之北狩 子女玉帛之掃盡 心魂驚散如醉如癡 惟以歌詠度日焉 自萬曆至己卯而止 無非憂國歎時之辭矣”, 「가장행적」.

16) “每聞時政治亂得失 輒述歌辭 仰天歎歎 曼聲爲數闋 以寄其志”, 박세채, 「효자수남방옹공정군(孝子水南放翁公鄭君) 묘갈명병서(墓碣銘并序)」.

17) “余讀水南放翁鄭公勳所作歌辭 而不勝其擊節嗟歎焉 ... 無一念不在王室 感事觸物 凡其可喜可愕一於歌辭乎 發之長唱短謠各極其趣”, 박필주(朴弼周), 「방옹유고서(放翁遺稿序)」.

가 혼란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지러울 때, 그는 항상 그러한 일들에 대해 한탄하고 울분을 토로하며 작품 창작에 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실제로 이괄(李适)의 난이나 정묘·병자호란 등 나라의 우환이 있었을 때마다 의병을 모집하여 출병하는 등 우국 충절을 몸소 실천하기도 한 인물이었다.

물론 이러한 시가 창작의 면모가 비단 정훈에게만 보였던 것은 아니다. 이전 시기부터 사대부의 사대부 작가들은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시가에 담아 자신의 울분과 감회를 표출해 왔다. 다시 말해, 사대부층은 끝없는 시름과 근심 속에서 현실을 살아가며 그 고민의 밑바닥엔 언제나 ‘우환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시조 등의 노래를 통해 현실의 시름을 풀어버리고자 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이러한 문학행위를 통해 현실의 우환 의식을 떨쳐버리고자 했던 것이 사대부 작가들의 기본적인 시가 창작 의식이자, 작가 의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이렇듯 정훈의 시가 창작 의식은 전대(前代)로부터 이어진 사대부층의 끊임없는 ‘우환 의식’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이러한 탄식과 울분을 시가(詩歌)를 지어 표출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자신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한 현실을 비판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것이 그 이전 시기의 사

18) 김학성, 「시조의 존재양태와 표현특징」,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321~323쪽 참조.

이러한 문학행위를 통해서 그 ‘시름’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것은 아니다. 김학성은 “사대부층은 끝없는 ‘우환의식’ 속에서 현실을 살아가며 그러한 우환 의식을 시조로 표출하기도 한다”고 하고,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언제나 현실을 걱정하는 인간으로 되돌아오고 만다”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시름을 순간적으로 잊고자 해도 끝내는 다시 현실의 우환 속으로 회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대부들의 속성”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사대부들의 작가 의식은 ‘우국탄식’의 시가를 다수 창작한 정훈의 작가 의식을 검토하는 데에도 유용한 시각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 작가들과 변별되는 점은 시가 창작과 향유를 단순히 여가(餘技)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적극적인 표현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가 남긴 여러 시가 작품에는 이러한 작가 의식을 반영한, ‘우국탄시(憂國歎時)’와 관련된 작품들이 많이 보인다. 가사 <성주중흥가(聖主中興歌)>, <우희국사가(憂喜國事歌)>를 비롯한 여러 시조 작품들은 나라의 위기와 현실의 상황을 반영한 작품들이며, 또한 현재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위한(趙緯韓)의 <유민탄(流民歎)>를 보고 따라 지었다는 <위유민가(慰流民歌)>¹⁹⁾도 현실에 밀착된 정훈의 시가 창작 의식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훈이 ‘우국탄시’의 주제와 관련해서만 시가 창작에 임했던 것은 아니다. 자신의 지난날을 회고하거나, 자연풍광에서 느낀 감회를 읊은 작품들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도 대부분은 현실에서 느낀 감회를 바탕으로 자신을 경계(警戒)하거나 그 정취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의 일관된 작가 의식에서 표출된 시가 작품으로 볼 수 있다.

3. 인륜(人倫)을 중시한 우국지정(憂國之情)의 표출

앞서 여러 기록들을 통해 정훈에 대한 후인들의 평가와 그의 인물됨, 그리고 현실과 밀착된 그의 시가 창작 의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훈이 창작한 시가 작품들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우국지정’의 노래들인데, 이 장에서는 이러한 문학 작품들이 그의 창작 의도와 맞물려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그의 시조 작품들을

19) “見趙玄谷流民歎 卽作慰流民歌以悲之”, 「가장행적」.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집을 지을던덴 材木을 求호느니
天生 고든 남글 어이 호여 브렛느고
두어라 棟樑을 삼으면 기울주리 이시랴.

(나) 뒷 뫼희 뭉퀸 구름 압들헤 퍼지거다 後山結雲蔽于中天
브람 불디 비 올지 눈이 올지 서리 올지 風耶雨耶霜耶雲耶
우리는 하늘 뜻 모르니 아프랄 줄 모로리다. 未知天意終何存

위 두 수의 시조는 정훈이 당시의 정국에 대한 관심과 그것에 대한 현실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가)는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출을 반대하다 대북파에 의해 퇴출된 이항복(李恒福)과 이덕형(李德馨), 이원익(李元翼)을 위해 지은 시조이다.²⁰⁾ ‘동량재(棟樑材)’ 모티프를 활용한 이 작품은, 대북파의 폭정 속에서 직언(直言)을 통해 군왕을 일깨우려 했던 현신(賢臣)들의 퇴출을 우의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화자는 곧은 신하들을 제대로 세운다면 나라가 기울 리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시국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나)는 <문북인작변(聞北人作變)>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 작품인데, 이 시조 역시 인목대비의 유폐와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죽음과 관련하여 대북파의 작당(作黨)을 한탄한 노래이다. 「가장행적」에는 이 시조의 의미가 설명되어 있는데,²¹⁾ ‘뒷 뫼희 뭉퀸 구름’은 대북파의 작당을 뜻하는 것이며, ‘하늘이 가렸다는 것’은 군주의 혼몽(昏夢)을 뜻한다고 하였다. 시조에서는 이 부분을 ‘압들헤 퍼지거다’라고 하였는데, 구름이 앞뜰에 펼쳐져 하늘을 가린다는 것

20) “往在昏邪弄權 忠賢竄逐 爲鰲城漢陰完平作歌而歎之歌”, 「가장행적」.

21) “後山結雲者 北人之作黨也 蔽于中天者 君象之昏蒙也 風雨雪霜者 大亂之將興也”, 「가장행적」.

이니 의미는 상통한다 하겠다. 그리고 ‘벼람 불디 비 올지~’는 장차 대란(大亂)이 일어날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 시조를 본 사람이, 정훈이 장차 화(禍)를 당할 것을 위태롭게 여겨 조심하라고 당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내가 진실로 죽고 싶으나 그 죽을 바를 얻지 못하였다. 마음에 품은 뜻을 읊은 것이니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겠는가? 천하에 어찌 부모 없는 사람이 있으리오. 천리(天理)가 멀하고 인륜(人倫)이 어지러워 나라가 망해 가는데, 서서 기다릴 수 있겠는가”²²⁾라고 대답하였다.

이 두 시조를 통해 볼 때, 자신의 신념을 “남의 이목을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였다는 「가장행적」의 기록은 단지 그를 추앙하기 위했던 기록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당대의 사람으로 이재(頤齋) 조우인(曹友仁, 1561~1628)은 당시 인목대비가 서궁(西宮)으로 유폐된 것을 안타까워하고 선왕을 생각하는 한시를 지었다가 시화(詩禍)를 입어 3년 동안 옥고(獄苦)를 치렀다.²³⁾ 조우인의 경우 당시 정계에 진출한 관료였고, 정훈은 남원에 머물러 있는 한미한 향촌사족이었기에 그것이 정계에 미치는 파장이 달랐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대북파가 정계를 전횡(專橫)하던 시기에 이러한 작품을 창작하고 읊어 낼 수 있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듯 정훈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드러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그는 ‘천리(天理)와 인륜(人倫)’을 중시하였고 그러한 자신의 신념을 시가를 통해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표출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22) “我固欲死不得其所 有懷必詠何畏乎死 天下豈有無母之人 天理滅人倫亂 國隨而亡 可立而待也”, 「가장행적」.

23) 조우인에 대해서는 최규수의 「<출새곡>과 <속관동(별)곡>의 작품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온지논총』제5집, 온지학회, 1999)와 줄고, 「이재(頤齋) 조우인(曹友仁)의 가사문학 연구」(『영주어문』제11집, 영주어문학회, 2006)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그의 우국지정(憂國之情)은 시조뿐만 아니라 가사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인조반정(1623)이 일어나자 그는 ‘거꾸로 매달렸다가 풀려나 일어서는’ 심정으로 가사 <성주중흥가(聖主中興歌)>를 지었다.

갓고로 들렀다가 글러나 내려서서 / 春風에 숨내쉬여 北極을 바라
보니 / 陰雲이 消盡하고 白日이 中天하샤 / 人間 冤枉을 갓고지 다 빗
최니 / 어와 살았다가 이 時節 보관지고 / 北向 再拜하니 눈물이 절로
난다 / 人倫을 拂키시니 萬姓이 咸服하고 / 舊人을 쓰시니 鬻法이 새
롭도다 / ... / 여으 숨 虎狼이 城闕의 ㄱ득하니 / 하늘이 놉다흔들 몸
을 갓게 내려서며 / 싸히 두터운들 밭을 편히 드릴런가 / ... / 邦本을
흐늘거든 百姓이 조출런가 / 宮闕을 만히 ㄷ다 몇 間의 살고마는 / 無
辜한 窮民을 그대도록 보첼세고 / 八方 貢膳을 얼마 먹고 니블 거슬 /
벼슬 ㅍ라 銀 ㅍ화 어디 두로 ㅍ하시며 / ... / 數百年 基業이 一髮에
危殆하니 / 江湖에 ㅍ려신들 社稷을 니줄손가 / 柴扉를 ㄷ고 안자 애
돌와 닐은 말이 / 大臣이 업거든 世臣이나 이시 되야 / 다 기운 宗社
를 바칠 줄몰 모르느다 / ... / 貧殘 獨夫는 어디 가 容身홀다 / 京城은
눈에 보고 外方은 귀여 듯고 / 一時 鼓舞하니 有光타 더 新王아 / 다
이운 草木에 時雨인들 이리홀가 / 東方 十六年이 夷狄이 다 되얏더니
/ 一朝 匡復하니 반가움이 ㄱ이 업다

<성주중흥가>

위 예문은 <성주중흥가>의 서사(序辭)와 본사(本辭) 부분으로, 광해군과 대북파의 폭정, 이로 인해 기울어 가는 종묘사직을 걱정하다가 인조반정을 맞아 기뻐하는 화자의 심경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당대의 정국과 정치상을 비판하고 있는데, 당시 정계를 농락했던 대북파를 ‘여우, 삼, 호랑이’ 등으로 비유하고, 이들이 장악했던 광해조의 시대를 방본(邦本)도 모르는 시기였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광해군 대의 무리한 궁궐 중수(창덕궁, 창경궁, 인경궁 등)로 인한 백성들의 고충, 대북파의 매관매직(賣官賣職)과 부패상 등을 작품에 반영하여 그 실상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폐주(廢主)가 된 광해군을 “빈잔 독부(貧殘 獨夫)”라고 과감히 폄하

하고 그 시절동안 조선은 오랑캐 땅이 다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다. 이는 당시 동아시아 정세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후금(後金)과 명(明) 사이에서 중립적 외교정책을 폈던 광해군에 대해 척화(斥和)의 기치를 올렸던 정훈의 윤리관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새롭게 군주가 된 인조와 반정공신들을 “다 말라가던 초목에 때 맞혀 내려진 비”에 비유하여 이들에 의해 기울어져 가던 나라가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고 한껏 찬양하였다.

이렇듯 <성주중흥가>는 광해군과 대북파의 폭정에 대한 강렬한 비판이 잘 나타난 작품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조반정에 대한 찬양이 지나치게 경도된 작품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로 인해 이 작품을 “자신이 교유한 인물들의 정계진출을 바탕으로 한편으로는 정계진출의 길을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원 지방에서 유력 사족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의 소산”²⁴⁾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정훈의 가졌던 정계에 대한 관심과 그가 남원에서 맺었던 유력 재지사족과의 관계, 한미한 향촌사족에 머물러 있는 자신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지방 사족의 고민 등을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해석과 평가가 일견 수긍이 되기도 하는 부분들이다.

그러나 이 가사의 후반부에 전개되는 군주에 대한 충언은 이 작품 또한 그의 일관된 신념에서 이루어진 우국지정의 작품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몸이 이제 죽다 설운 일이 이실손가 / 誠歡 誠喜라 머근 뜻이
업건마는 / 龍顏이 遠隔하니 누를 조차 슬오려뇨 / ... / 忠言이 逆耳
고 順志는 易狎하니 / 自古賢君이 몇치나 고쳐 된고 / 一人이 正하면
一國이 다 正하고 / 一人이 貪戾하면 一國이 作亂이라 / 興亡 轉轍이
괴 아니 거울인가 / 冕旒 蔽目하나 末形을 슬피시며 / 黠纒이 塞耳
나 無聲의 드르쇼셔 / 創業은 쉽거니와 守成이 어려우니 / 芻蕘 一言

24) 이상원, 앞의 논문, 2004, 190쪽.

을 횡허 혼 적 복외쇼셔 / 이 몸이 희을 일이 업서 祝壽無疆 혼나이다
 <성주중흥가>

위 예문은 <성주중흥가>의 결사(結辭) 부분이다. “誠歡 誠喜라 머근 뜻이 업건마는 龍顔이 遠隔하니 누를 조차 슬오려뇨”라는 구절은 정훈의 정계진출에 대한 갈망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며 이후 전개되는 군왕에 대한 충언(忠言) 역시 앞의 구절과 함께 자신이 왕의 가까이에서 있고 싶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²⁵⁾ 그러나 이는 작품 외적인 작가의 여러 상황과 지나치게 결부하여 해석한 데 따른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정훈은 폐주 광해군의 몰락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음을 노래 곳곳에서 서술하였다. 그는 폐주가 몰락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도 다른 뜻이 없고 만족하지만, 그가 품었던 우국의 심정을 임금에게 전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는 지방 향촌에 묻혀 사는 일개 사족일 뿐이며 그가 갖고 있는 충심을 전달하기란 요원(遙遠)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걱정스런 마음에, 신왕(新王)이 선정(善政)을 베풀어 주길 기대하며 자신의 충언(忠言)을 노래에 담아 읊어냈던 것이다. ‘홍망 전철의 귀감’을 말하고 ‘면류관이 눈앞을 가려 볼 수 없고 귀막이가 귀를 막아 들을 수 없더라도’ 임금이 나라의 사정을 보고 듣기를 작품에 서술한 것은 인조가 성군(聖君)이 되어 나라의 방본(邦本)을 다시 세우고 덕치(德治)를 행하기 바라는 정훈의 소망이었던 것이다.

前朝 피흔 銀을 功臣아 다 써슨다
 더러 明鏡 지어 大闕 모회 거러두고
 殷鑑 머지 아닌 줄을 비췌들 엇더허리

25) 류숙영, 앞의 논문, 1998, 145쪽.

이 시조는 반정공신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²⁶⁾ 정훈이 이 시조에서, 전 왕대의 몰락을 거울삼고 그 전철(前轍)을 다시 밟지 말기를 바라며 ‘은감불원(殷鑑不遠)’ 고사를 인용한 것은 <성주중흥가> (“興亡 轉轍이 기 아니 거울인가”)에서 추구하고자 한 의미 지향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가 정계진출의 소망을 품고, 교유하는 여러 사족들이 반정정권 참여한다는 점²⁷⁾을 감안하여 <성주중흥가>를 지었다면, 가사 말미에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충언은 굳이 서술할 필요가 없었고 또한 이와 같은 시조 작품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훈이 <성주중흥가>를 창작하면서 찬양 일변도로 치우치지 않고 가사 후반부에 자신의 충언을 담아낸다는가 반정공신들에게 당부하는 시조를 창작하든가 한 것은 유교적 이념에 투철한 자신의 신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가 인조반정을 지지한 까닭은 폐주를 몰아내고 ‘인륜(人倫)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가장행적」의 기록에서 살펴 본 “천하에 어찌 부모 없는 사람이 있으리오. 천리(天理)가 멀하고 인륜이 어지러워 나라가 망해 가는데, 서서 기다릴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과 같은 일관된 자기 신념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훈이 단순히 인조의 반정정권에 대해 찬양만 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말년에 지은 <우희국사가(憂喜國事歌)>²⁸⁾에서는 계속되는 외침과 이인거(李仁居)의 모반(謀叛) 등

26) “及聞癸亥反正之奇 權喜若狂曰 豈意老身復見天日之明 乃作聖主中興歌 且爲功臣作短歌”, 「가장행적」. (『경주정씨세고』에는 <계해반정후계공신가(癸亥反正後戒功臣歌)>라는 제목과 함께 그 내용이 한역되어 전하고 있다.)

27) 교유했던 인물들 중 최연, 최은 형제는 광해조에 대북파들에 의해 파직되어 남원에 은거하던 인물들로, 인조반정으로 이후 다시 정계로 진출하게 된다.(권순희, 최현재, 앞의 논문 참조.)

28) <우희국사가>는 정훈 자신이 살았던 격동기의 세월을 가사에 담아낸 장편가사로, 1583년부터 1637년까지 있었던 나라의 큰 사건들과 국란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경주정씨세고(慶州鄭氏世稿)』에 수록되어 있는

정국의 혼란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임금[인조]이 덕을 닦지 않아서 인심을 잃어서인지, 국운이 이미 쇠하여서 맥이 상하여 그런지’²⁹⁾ 알 수 없다고 한탄하였다. 만약 그가 몇 년을 더 살아서 인조의 장자인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의혹스런 죽음을 접하였다면 그는 아마도 또 다시 시가를 지어 자신의 울분을 담아 토로했을 것이다.

4. 출처(出處)의 고민과 우환(迂闊) 의식의 본질

정훈이 살아있던 시기는 나라 안팎으로 끊임없는 혼란이 가중되던 세월이었다. 이러한 혼란은 당대를 살아가던 한 개인에게도 여러 면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나이 30세가 되던 해에 임진왜란이 발발(勃發)하였고 그 시기에 아버지를 여의게 된다. 「가장행적」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피난가지 않고 전란의 와중에서 장례와 우제(虞祭)를 치렀다고 한다. 또한 홀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여 보는 사람마다 감동치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³⁰⁾ 이렇듯 유교적 윤리덕목인 효행과 인륜을 강조한 그가 인목대비의 유폐라든가 나라의 환란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앞서 살펴본 바를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형상화한 여러 시가 작품들이 단순히 자신의 공리(功利)—정계 진출이나 향촌사회에서의 입지 강화

이 작품은 <성주중흥가>와 함께 한역되어 전하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고순희의 「임란 이후 17세기 우국가사의 전개와 성격」(『한국고전연구』2, 한국고전연구학회, 1996)과 김문기의 「정훈의 <우회국사가> 고찰」(『국어교육연구』제31집, 국어교육학회, 1999)을 참고할 수 있다.

29) “德不修歟 人心失歟 國運已衰 脉將傷而然歟”, <우회국사가>.

30) “倭寇逼府 公蒼黃負土築灰成墳 從容以禮謹行虞祭… 雖在奔波危急之中 朝夕之祭一不廢徹 養親之資竭力經營 雖得一溢之米 必釀醴酒以祭 然後進於大夫人 故居人感之”, 「가장행적」.

—를 위해 지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유교적 이념에 투철했던 그가 출사(出仕)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경국제민하고 물러나서는 안분지족하는 삶은 이상(理想)이 아니라 사대부로서 실천해야 할 궁극의 목표 이념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젊은 시절에 대한 환로(宦路)를 모색했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의 수학(修學) 과정에 대한 기록이 전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정훈의 형인 정점(鄭點)이 18세의 나이에 요절(夭折)하자 부모는 그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고, 그런 그는 밤마다 부모가 잠이 든 후에야 이웃 서당에서 글을 읽어 스스로 깨우쳤다고 한다.³¹⁾ 그가 후에 최은 형제 등과 교유를 나누고 시로써 그 정을 펼쳤다는 기록³²⁾을 볼 때 그가 가졌던 학식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른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가 왜 출사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못했는지 이에 대해서는 추측만이 가능할 뿐이다. 젊은 시절에는 형의 요절로 인한 부모의 반대도 있었을 것이고 정작 장년이 되었을 때는 임진왜란과 부친상 등으로 인해 출사의 기회를 잡지 못했을 수도 있다.

출사에 대한 정훈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음의 시조들에서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 落落 千丈松이 空谷에 빠져 나니
길고 고든 양은 棟樑의 맛다마는
匠石(이) 본 양을 아니하니 (절로) 늘거말가 흐노라

31) “父母痛惜長子之早逝 憐公之單獨孺孩 絕不言文學之事 任其行止之 … 每至夜 分父母就寢命退 然後卽往隣友之書堂 學書而讀之 … 以至成學 而父母不知矣”, 「가장행적」.

32) “與崔砥齋蘊兄弟 以爲道義之交源源講磨互有補益 時以歌詩以叙其情曲焉”, 「가장행적」.

(라) 人間의 사름이 한들 五倫 알 리 귀 며티리
 攀龍附鳳 ㅎ야 願卜隣 ㅎ건마는
 百年이 하 쉬이 가니 뉘동 말동 ㅎ여라

<기우인(寄友人)>

(다)의 경우 「가장행적」의 기록에 의하면, “말년에 스스로를 경계하며 지은 작품(末年作歌自警)”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정훈은 자신을 ‘길고 곧은 동량재’에 비유하고 등용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자신의 지난 세월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라)의 시조 역시 말년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으로, 지난날 정훈이 가졌던 출사의 포부를 짐작할 수 있는 작품이다. 여기서도 그는 오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자기 신념을 바탕으로 군주를 섬겨 공명(功名)을 이루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장에서 보이듯 쉽게 흘러가버린 세월 속에서 그의 포부는 이상으로만 남겨졌다.

이 시조들을 볼 때, 정훈은 출사에 대한 생각이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란(戰亂)이 끝났을 때 이미 그는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나라 안팎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출사(出仕)는 그에게 그리 큰 의미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특히 정계의 혼란은 정훈을 비롯한 당시의 향촌사족들에게 공통적으로 출처(出處)에 대한 고민을 갖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훈은, 사화(士禍)를 거치며 정계의 중심으로 성장한 사림(士林)들이 동서(東西)로 나뉘고 동인은 다시 남북(南北)으로 나뉘는 파당(破黨)의 현실을 목격하였고 또한 이것이 큰 전란을 야기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전란이 끝난 시점에서도 대북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정계의 현실은 그로 하여금 출처(出處)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대 사람으로 정훈과 비슷한 처지의 향촌사족이었던 김득연(金得研, 1555~1637)은 나이 58세가 되어 생진(生進) 양시(兩試)에 모

두 합격했으나 당시 북인들이 정계를 장악하고 있어 나가지 않았고, 인조반정 이후 나라에서 세 번이나 불렸지만 역시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김득연이 자신의 시조 작품에서 “本性이 無識하여 아모 일도 다 모르니 / 東西을 내 알며 南北인들 내 아더냐 / 아마도 모르는 거시니 모르는 대로 흐리라”라고 노래한 것은 거듭되는 당쟁의 혼란에 대해 향촌사족의 입장에서 그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³³⁾ 정훈 역시 말년에 지은 <우회국사가>에서 “본디 옛날엔 동서(東西)가 없었는데 / 어느 누가 만들어 내 당기는 듯 미는 듯 / 나라 근본 어지럽히니 천변(天變)인들 아니 일랴”³⁴⁾라고 하며 당쟁의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는데, 이는 당시 향촌사족들이 가졌던 정계혼란에 대한 공통된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³⁵⁾

이렇듯 당대의 혼란스런 여러 상황은 정훈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향촌에 머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말년에 지은 그의 시조 작품들을 보면 이에 대한 안타까움도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마) 나의 일 돌이켜 생각하니 진실로 우습도다 回思吾事眞可笑

-
- 33) 김득연에 대해서는 이상원의 「16세기말-17세기초 사회 동향과 김득연의 시조」(『어문논집』31집, 민족어문학회, 1992)와 육민수의 「김득연 문학작품의 특성」(『반교어문연구』17집, 반교어문학회, 2004) 등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 34) “古所無東西 變阿誰成得出 如挽如推 撥亂邦本 天變豈不發”, <우회국사가>.(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하성래(앞의 논문, 1973, 420쪽)의 것을 따랐다.)
- 35) 당대의 향촌사족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고순희(앞의 책, 1996)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고순희는 “광해군조에 정권을 쥐고 있었던 대북파 외의 대부분 선비들이 광해군을 비판하였고, 이것이 향반들 전체에 확산되어 민심(民心)으로 존재해 있었다”(129쪽)고 보았고, 또한 “정훈이 반정세력인 서인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북인의 독점정국에서 대다수 소외된 재야사립의 일반적인 입장은 반광해군이 었다”(133쪽)라고 지적하였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무슨 일을 이루었던가 生出人間何事做得成
백년이 꿈과 같으니 오직 슬픔만이 있구나 百年如一夢惟是悲傷

(마) 닭이 뉘게 뵈화 부딪 사뵈 우는 게고 鷄也學於誰鳴必曉頭爲
無知 微物도 제 홀 일 다 흥거든 無知微物亦能渠所爲
엇디타 有識흔 사름이오 제 홀 일을 모르논고
如何有識人不知人所爲
<자경(自警)>

이 두 작품은 『경주정씨세고』의 <시류(詩類)>에 ‘자경(自警)’이라는 제목으로 연이어 수록된 작품이다.³⁶⁾ 앞서 보았던 (다), (라)에서는 출사하고자 했던 화자의 의지와 동시에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의 심리를 읽을 수 있었다면,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와 그것을 고뇌하는 작가 정훈의 심사가 잘 드러나고 있다.

(마)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무슨 일을 이루었던가”라는 표현은 앞서 시조에 나타났던功名(功名)을 이루지 못한 데에 대한 자책으로 읽을 수 있으며, 화자는 그러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슬픔만이 남는다고 고백하고 있다. (마)의 시조는 미물(微物)인 닭도 자기의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데, 배워서 알고 있는 존재인 사람이 그 자신의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계하여 말하고 있다. 종장에서 보이는 ‘사름’은 작가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정훈은 자기 스스로를 ‘제 할 일’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가 생각했던 ‘제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앞서의 시조 작품들과 연관 지어 보면, 이는 지난날 자신이 가졌던

36) 『경주정씨세고』에는 이 두 작품 모두 한역(漢譯)되어 실려 있다. 이 작품 중 제2수인 “닭이 뉘게 뵈화~”는 『수남방옹유고』에 ‘자경(自警)’이라는 제목에 국문(國文)으로 수록되어 있어 그 작품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상과 포부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작품에 나타난 자기 반성적 어조(語調)를 감안한다면 현실의 여러 상황에 대한 자신의 처신(處身)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³⁷⁾

정훈은 이러한 자신에 대한 생각, 다시 말해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신과 심정을 가사 <우환가(迂闊歌)>를 통해 길게 읊어낸 것으로 보인다.

아침이 不足흔들 저녁을 근심하며 / 一間 茅屋이 비식는 줄 아듯던
가 / ... / 四時佳景을 아므란 줄 모로라 / 末路에 브린 몸이 므스 일을
스럼홀고 / 人間 是非 듯도 보도 못헝거든 / 一身 榮枯 百年을 근심홀
간 / 迂闊홀샤 迂闊홀샤 그레도록 迂闊홀샤 / 하늘 삼긴 迂闊을 내 혈
마 어이 헝리 / 그레도 애듭도다 고쳐 안자 싱각헝니 / 이 몸이 느저
나 애돌온 일 하고 만타 / 一百번 다시 죽어 넷 사람 되고라자 / 羲皇
天地에 잠간이나 노라 보면 / 堯舜 日月을 저그나 띄울 씨슬 / 淳風이
已遠헝니 儉薄이 다 되거다 / 汗漫헝 情懷을 늘드려 니르려노 / ... 萬
里에 눈 쓰고 太古에 뵈줄 두니 / 迂闊헝 心魂이 가고 아니 오노왜라
/ 人間의 호자 씌여 늘드려 말을 홀고 / 祝駝의 佞言을 이제 비화 어
이 헝며 / 宋朝의 美色을 얼굴 늦킵 잘 홀런가 / ... / 무이고 못 고이
미 다 迂闊의 타시로다 / 이리 혜(오) 저리 혜(오) 다시 혜니 / 一生事
業이 迂闊 아닌 일 업뇌와라 / 이 우환 거느리고 百年을 어이 헝리 /
아희아 잔 ㅁ득 부어라 醉헝여 내 迂闊 닛다

<우환가>

<우환가>는 평생 세사(世事)에 어두웠던 자신의 처신에 대해 한

37) 류숙영(앞의 논문, 1998, 113쪽, 주15번)은 (바) 시조를 두고, 정훈이 향촌 사회 내에서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 훈도할 수 있는 위치에 알 수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제목이 ‘자경(自警)’이란 점과 또한 『경주정씨세고』에 연이어 수록되어 있는 작품(위의 (바) 시조 작품)의 성향과의 의미 맥락을 고려해볼 때, 자기 반성적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탄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의 한탄은 “시대를 제대로 타고 나지 못함에 대 탄식”³⁸⁾으로 읽기도 하고, “자신의 삶이 결국 무의미한 것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만년에 와서야 깨달은 것”³⁹⁾으로 보기도 한다. 선행 연구에서 이 같은 평가가 내려진 것은 관념적 이상과 냉엄한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낀 정훈의 고뇌가 문면 그대로 작품에 드러난 것이라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반어적 어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집에 비새는 줄도 모르고 사시가경이 어찌 변하든 모르는 화자에게 인간 시비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이니 근심할 거리가 되지 못한다. 그러한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화자 자신이 잘 알고 있다. 평생의 모든 일이 우월하고, 이러한 우월은 하늘이 주신 것이고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월가>의 표면적 문맥이다. 그러나 이것이 작가 정훈이 이 작품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닐 것이다.

‘우월’은 흔히 정신적 우월감을 표출할 때 쓰는 말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 쓰인 ‘우월’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작가 자신의 우매함을 스스로 드러내고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매해 보이는 자신의 처신을 반어적 어법을 통해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복잡한 인간사의 시비를 듣지도 보지도 못하니 근심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한 것은 앞서 언급한 김득연의 시조 종장에서 당쟁의 혼란을 두고 “아마도 모르는 거시니 모르는 대로 흐리라”라고 한 것과 같은 의미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비판적 속내를 반어적으로 나타낸 것처럼, <우월가>의 표현도 그러한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화자의 속내는

38) 최현재, 앞의 논문, 2004, 172쪽.

39) 이상원, 앞의 논문, 1997, 248쪽.

“人間的 호자 씌여 눌드려 말을 흘코” 부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정훈이 추구하고자 했던 삶은 ‘옛 사람’들과 같은 순수 처사적 삶이다. (“一百번 다시 죽어 옛 사람 되고라자”) 그러나 순풍(淳風)은 멀어지고 그러한 세태 속에서 처사적 삶은커녕 점점 경박해져만 가는 자신을 보게 된다. ‘축타(祝駝) 영언(佞言)’과 ‘송조(宋朝)의 미색(美色)’은 어찌 보면 현실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처세적(處世的) 수단이다. 화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것을 좇음이 어떻겠냐고 자문(自問)하지만, 이내 생각을 접고 세상에서 미움 받는 것도 자신이 우월한 탓이라고 말하고 있다. (“무이고 못 고이미 다 迂闊의 타시로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의 ‘우월’은 외면적 현실 추구하고 내면적 이상 추구의 사이에서 내면적 이상 추구를 지향하는 자신의 모습, 또는 그에 따라 처신하는 자신을 가리키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술에 취해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자신의 ‘우월’이며, 그런 우월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이 작품의 궁극적인 의미 지향이다.

기존 논의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월가>에서 정훈은 ‘정신적 우월감’을 완전히 내세우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작품에서 작가 스스로의 완벽한 초월과 자기 해결을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혼자 깨어있는 자신’과 ‘경박해져만 가는 자신’은 모두 화자 정훈의 모습이며, <우월가>에는 이 둘 사이에서 고뇌하는 작가 정훈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내 양즈 하 험하니 비노 성적 아니 흥닉
분 브른 각시님네 다 웃고 돈니거든
엇스제 지나간 흥 분이 호자 곱다 흥노라

<월곡답가(月谷答歌)> 제2수

월곡(月谷)은 정훈이 선망했던 대상이다.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⁴⁰⁾ 시조 <월곡답가> 10수와 <사월곡(思月谷)>이라는 제하(題下)에 3수의 한시가 전하는 것으로 보면 절친했던 인물로 생각된다. 시조와 한시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월곡은 처사적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평가되며 정훈은 그러한 그를 흠모하며 동경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월곡답가>의 제2수로, 초장에서는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박하게 살고자 하는 화자 자신의 면모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에서는 이내 시상(詩想)이 바뀌어 현실 속의 ‘분 바른 각시님들’은 그러한 자신을 모두 비웃고 다닌다고 한다. 잘 꾸미고 ‘영언(倂言)’과 ‘미색(美色)’을 갖춘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화자는 현실 사정에 어둡고 사리판단이 늦은, 우랄한 인물인 것이다. 그런 자신을 알아주는 이는 오직 월곡(‘옛그제 지나간 분’)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랄가>에서는 자신의 내면적 모습을 완전히 내세우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이 시조에서는 우의적인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5. 처사(處士)적 삶의 동경과 관념적 자연 인식

「가장행적」을 비롯한 여러 기록들에는 정훈의 우국지정과 효행 등 유가적 삶의 면모가 중점적으로 부각되어 있고, 또한 그의 시가 창작이 대부분 ‘우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 장에서 살펴본듯이, 정훈의 시가 작품에 드러나는 그

40) 이상원(앞의 논문, 2004, 192쪽, 주20번)은 『옥경현유고』(장복검 문집)에 수록된 <도월곡정여활(悼月谷丁汝活)>이라는 만시(挽詩)와 <제월곡서당(題月谷書堂)> 등의 시를 통해 월곡이 ‘정여활(丁汝活)’이란 인물임을 추정한 바 있다.

의 면모가 이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상의 어지러움을 분개하고 나라의 우환을 걱정[憤世憂國]’하면서 한편으로는 혼란한 시대에 태어나功名(功名)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포부를 펼칠 수 없었음을 고뇌하기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이상적 삶을 추구하려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우월하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혼란한 삶의 현실은 그로 하여금 자연에 귀의하여 처사(處士)적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월곡을 동경하며 그렇게 많은 시가를 창작한 것도 세사(世事)에 흔들리지 않는 그의 내면 풍경을 동경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 靑松으로 울홀 삼고 白雲으로 帳 두르고

草屋 三間이 숨어 겨신 저 내 벗님

胸中에 尘念이 업스니 그를 스랑호노라

<월곡답가> 제4수

(아) 商山의 採芝호러 부딪 내히 가리런가

쫓즈리 업스디 우리 둘히 가사이다

世上 어즈러운 일들 듯도 보도 마사이다

<월곡답가> 제9수

(사)의 초중장에 그려진 산림(山林)의 풍경은 이미 전통적인 강호(江湖) 시조에서 접할 수 있었던 익숙한 자연의 정경이다. ‘청송’과 ‘백운’으로 둘러싸인 ‘초가 삼간’은 강호에 은거하는 산림처사들의 공간을 형상화한 상징적인 문학적 장치이다. 그러나 그 곳에 사는 사람은 화자인 정훈 자신이 아니라 ‘벗님’인 월곡이다. ‘벗님’이 ‘숨어 지낸다’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정훈이 현재 있는 곳은 강호 바깥의 세상, 곧 먼지 속 세상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강호에 숨어 지내는[隱居] 월곡’에게는 세사에 흔들리는 진념(塵念)이

없기 때문에 화자는 그런 그를 사랑하고 동경한다고 말하고 있다.

‘상산사호(商山四皓)’ 고사를 인용한 (아)의 시조는 처사적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정훈의 의지가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초중장의 내용은, 상산에 은거하려는데 갈 사람은 자신과 월곡 둘뿐이니 굳이 네 명이 갈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다.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화자는 세상과 단절한 처사적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종장의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은 듣지도 보지도 말자’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오히려 역으로 세상에 대한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정훈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정훈은 처사(處士)로서 살아가고자 한 자신의 의지를 여러 작품을 통해 표출하였지만, 세속을 초월하고 초야(草野)에 묻혀 살기란 그리 쉽지 않았던 것 같아 보인다. 가사 <용추유영가(龍湫游詠歌)>에는 이러한 정훈의 고뇌가 잘 나타나 있다.

方丈山 노픈 미히 西北으로 흘러 내려 / 龍湫洞 머므러 盤谷이 되
 엇거늘 / 物外에 버린 몸이 山水에 病이 되어 / 暮往 朝來에 슬된 줄
 이 전해 업서 / 數間 茅屋을 雲水間간의 열거미고 / ... / 아츰비 굿개
 여 靑嵐이 빗기 늘고 / 斜陽이 山의 거러 불근 비치 비칠 저기 / 온
 가지 濃態를 거두어 어디 두리 / 막음도 번의할샤 어닉 景을 보려 두
 리 / ... / 넛 사름 氣像을 미출가 못 미출가 / 萬古에 스쳐 보니 어제
론 덧 흐다마는 / 洒落흔 風采를 꿈에나 어더 볼가 / 넛 사름 못 보거
든 이젧 사름 어이 알고 / 이 몸이 느껴나니 傷懷도 쓸 디 업다 / 山
鳥 山花를 내 버줄 삼아 두고 / 一區 風烟에 삼긴 대로 노는 몸이 /
功名을 思念하며 貧賤을 설위홀가 / 簞食 瓢飲으로 내 分만 안 과흐니
/ 日月도 閑暇홀샤 이 溪山 景物을 슬토록 거느리고 / 百年 光陰을 노
리다가 마로리라 / 아히야 松關을 그리와라 世上 알가 흐노라

<용추유영가>

가사 전반부에 전개되는 자연 풍광의 모습은 이전 시기의 강호 가사를 보는 듯하다. ‘산수(山水)’에 병이 깊어 자연 속에서 ‘유영

(遊詠)’하는 모습이 전기 가사의 정취를 그대로 옮겨 놓았다. 이는 앞서 (사) 시조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정훈은 선현들이 누렸던 자연의 정취를 그대로 잇고 계승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사의 후반부로 들어서면, 시상(詩想)이 전환되어 ‘옛 사람의 기상(氣像)과 풍채(風采)’를 동경하는 서술로 변화되고 있다. ‘옛 사람에 대한 동경’은 정훈의 시가에서 자주 등장하는 요소인데, 옛 사람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다시 태어나서 옛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였다.⁴¹⁾ 그토록 옛 사람을 그리워한 까닭은 그만큼 세사에 찌들지 않은 처사적 삶을 추구하고자 한 작가 정훈의 바람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바람을 작품 전반부에서는 잘 드러내어 묘사했지만, 후반부에서는 “洒落흔 風采를 꿈에나 어더 볼가”, “이 몸이 느껴나니 傷懷도 쓸 디 업다”라고 하며 자연에 귀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용추유영가>에서의 자연은, 과거 사람들이 출처(出處)를 반복하다가 귀의했던 은거지이거나 성정수양(性情修養)의 공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출사를 한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산림 처사를 자처할 처지도 아니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과거 선현들이 누렸던 자연의 정취와 탈속의 경지를 좇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번번이 현실적 공간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아마도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우환 의식’이 그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작품 곳곳에서 ‘계산경물(溪山景物)을 마음껏 거닐고 백년 광음(百年光陰)을 즐기면서 지내겠다’고 말하면서도 작품의 마지막

41) “넷 사름 이췌 사름 耳目口鼻 갓갓마는 / 나 혼자 엇디 何야 넷 사름을 그리논고 / 이제도 넷 사름 겨시니 귀 내 벗인가 何노라”, <월곡답가> 제 1수.

“하늘 삼긴 迂闊을 내 혈마 어이 何리 / 그레도 애ळ도다 고쳐 안자 싱 각하니 / 이 몸이 느껴 나 애들은 일 하고 만타 / 一百번 다시 죽어 넷 사람 되고라자”, <우환가>

에서는 “松關을 ㄱ리와라 世上 알가 ㅎ노라”라고 한 것은 자신의 우환을 덮어두고 작품 속에서나마 자연에 귀의하고자 한 정훈의 소망이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벗님 사는 짜홀 싱각고 ㅼ라 보니
龍湫洞 ㅼ끼오 구름 ㄸ리 우히로다
밤마다 외로운 ㅼㅅ만 호자 ㄸ녀 오노라

<월곡답가> 제5수

<용추유영가>에서 ‘용추동’은 작가 정훈이 현실과 떨어져 은거하고자 했던 자연 속 공간이다. 이 시조에서 ‘벗님이 사는 곳’은 이상적 세계이자 화자인 정훈이 동경하는 세계이다. 그러나 그 곳은 ‘용추동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곳이 어디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저 꿈속에서나 오고 갈 뿐이라고 화자는 말하고 있다. ‘용추동’은 자연 속 공간이었지만 작가 정훈이 현재 서 있는 현실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이 시조는 자연에 온전히 귀의하지 못하는 정훈의 심경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적인 자연 공간에 대한 작가 정훈의 동경은 <수남방옹가(水南放翁歌)>에서 잘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수남방옹가>는 <용추유영가>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자연 속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溪山이 님재 업서 雲水間의 ㅼ렛거닐 / 荊茅를 헤혀고 數間을 열거
미니 / ... / 온 가지 時景을 슬도록 다 본 후에 / 아바 아희들아 西疇
에 일이 있다 / 짜부 호미 다 제곰 ㄱ져스라 / 갈거니 지거니 數畝를
밋춘 후에 / 傾筐을 드러메고 ㄸ 밋희 올라가니 / 어린 취 못다 크고
薇蕨이 채 슬것다 / 격그며 다므며 바구리 못다 차셔 / 峰頭에 올라
안자 采薇歌를 기리 내며 / ... / 一盞 復一盞 마신 後에 / 낙싯대 밋기
들고 苔磯를 츠자가니 / 밋기 업슨 낙시에 고기마다 다 몬느다 / 魚鳥
도 ㅼ트즐 바다 다 疑心 아니ㅎ넉 / ... / 日復 日日에 山水로 消日ㅎ니 /

山水之樂을 날 빛의 뉘 아논고 / 天衢에 日永하고 綠樹에 陰濃커늘 /
 ... / 게오른 이 몸이 언제야 閑暇홀고 / 歡娛 已極하니 秋思도 만히
 난다 / 關西 將士는 언제나 도라오며 / 九重 宵旰은 엇지곰 흐샤논고 /
 蓋簪多士들아 아 / ... (낙질)...

<수남방옹가>

<수남방옹가>에서는 자연에 은거하여 ‘궁경(躬耕)’하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그려내었다. 산수 간에 초옥을 짓고 밭을 갈며 고사리 캐는 모습이 산림에 은거한 처사의 삶이다. 또한 술 한 잔 마신 후에 낚싯대를 드리워 자연의 운치를 즐기는 모습은 속세를 떠난 가어옹(假漁翁)의 모습 그대로이다. 자연 속을 거닐며 소일(消日)하는 화자는 ‘산수지락(山水之樂)’을 그 누가 아느냐며 호기롭게 말하고 있다. 이는 <용추유영가>에서 보이던 정훈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면모이다. <용추유영가>에서만 하더라도 자연에 귀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한 자연 속에 있는 순간에도 세상과의 끈을 놓지 못하여 ‘옛 사람’들의 기상(氣象)을 동경하던 그였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수남방옹가>에서 그려진 자연 속 여러 장면들이 이전 시기부터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었던 전형화 된 강호 자연의 모습이라는 점이다. 미끼 없는 낚싯대를 드리웠다는 것은 가어옹의 관습적 양태를 표현한 것인데, 그러한 양상까지도 작품 속에서 형상화되어 그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수남방옹가>의 자연은 화자의 관념 속에서 존재하는 자연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산림처사의 다채로운 모습이 여유로우면서도 온전한 형상으로 그려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작품에서 정훈은 관념 속에서나마 자신이 동경했던 이상적인 처사적 삶과 자연의 모습을 그려내어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용추유영가>와 비교했을 때, <수남방옹가> 화자의 목소리가 호기로운 것도 화자가 존재하는

곳이 바로 작가 정훈이 동경해 온 이상적인 자연 공간이기 때문 일 것이다.⁴²⁾

6. 정훈 시가에 나타난 문학적 형상의 시가사적 의미

마지막으로 정훈의 가사 작품인 <탄궁가(嘆窮歌)>를 살펴보고, 정훈 시가 문학이 갖는 시가사적 의미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탄궁가>는 제목 그대로, 가난을 한탄하고 있는 노래이다. 이 작품은 정훈의 다른 시가 작품들처럼 당대 현실 상황에 대한 그의 적극적인 관심에서 만들어진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 볼 때 주목할 점은 그러한 현실을 작품 속에 담아내는 데 있어 다양한 문학적 방법들을 통해 형상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늘이 삼기시를 일정 고로 흐련마는 / 엇지흔 人生이 이대도록 苦
楚하고 / 三旬 九食을 엇거나 못 엇거나 / 十年 一冠을 쓰거나 못 쓰
거나 / ... / 이바 아희들아 아모려나 힘써스라 / 죽운 물 상청 먹고 거
니 건져 종을 주니 / 눈 우희 바늘 (젓고) 코흐로 꼭람 분다 / 올버는
흔 블 뺏고 조 꼭튼 다 무기니 / 살히피 바랑이는 나기도 슬찬턴가 /
환자 장이는 무어스로 당만흐며 / 徭役 貢賦는 엇지흐야 출와넨고 /
... / 時節이 豐흔들 지어미 비브르며 / 겨스를 덥다 흔들 몸을 어이
그리울고 / ... / 이 怨讐 窮鬼를 어이흐야 녀희려뇨 / 수리 餓糧을 ㄱ

42) 작품의 뒷부분은 소실되어서 가사 전체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 인 내용 전개(강호 자연에 대한 형상화)와 “關西 將士는 언제나 도라오며 / 九重 宵旰은 엇지곰 흐샤는고 / 蓋簪多士들이”라는 구절을 통해 볼 때, 그 뒤에는 연군지정(戀君之情)과 권신(權臣)들에 대한 경계(警戒)의 내용 이 서술되었을 것이다. 이는 <수남방옹가>가 전기 강호가사의 문학적 형 상을 따르는 것으로 보아 어법상 이러한 내용이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 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초오고 일흠 불러 餞送하야 / 日吉 辰良에 四方으로 가라 하니 / 啾啾
 憤憤하야 怨怒하야 니른 말이 / 自少 至老히 喜怒 憂樂을 / 너와로 함
 의 하야 죽거나 살거나 녀훔 줄이 업섯거늘 / 어디 가 뉘 말 듯고 가
 라 하여 니르느뇨 / 우는 듯 꾸짖는 듯 온 가지로 恐嚇커늘 / 도롯서
 싱각하니 네 말도 다 올토다 / 無情호 世上은 다 나를 브리거늘 / 네
 호자 有信하야 나를 아니 브리거든 / 人威로 絶避하야 좀씨로 녀훔 너
 냐 / 하늘 삼긴 이 내 窮을 혈마흔들 어이 하리 / 貧賤도 내 分이어나
 설워 므슴하리

<탄국가>은 ‘궁핍(窮乏)’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작품 전반에 흐르는 정조(情調)는 그리 무겁지 않아 보인다. 내용을 보면, 전반부에는 여전히 ‘우활’한 화자 정훈의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중반부에는 당대 궁핍한 향촌 사정에 대한 비판적 서술도 보인다.

이 작품의 특징적인 면은 가난한 삶의 형상을 ‘장면화’를 통해 희극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다. 가난한 상전에게 콧방귀를 끼는 종의 행동 묘사나, 가난을 ‘궁귀(窮鬼)’로 설정하고 없는 살림에 수레와 후량(餽糧)까지 갖추어 궁귀를 내쫓으려는 장면은 우의적 상황 설정을 통해 ‘궁핍’이라는 주제를 유연하게 풀어내고자 한 작가 정훈의 의도적인 장치로 생각된다. 특히 가사 마지막의 “無情호 世上은 다 나를 브리거늘 / 네 호자 有信하야 나를 아니 브리거든 / 人威로 絶避하야 좀씨로 녀훔 너냐”라는 구절은 겉으로는 ‘썩쓸한 웃음’을 짓게 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궁극적인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정훈이 가난이라는 소재를 어렵지 않게 형상화 할 수 있었던 것은 전란(戰亂)으로 혼란했던 시절에 몸소 가난을 느끼고 체험했었기 때문이다.⁴³⁾ 이러한 경험과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정훈은 현실

43) 「가장행적」에 따르면, 정훈은 전란이 끝난 직후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과 밀접한 소재와 어휘를 사용하고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이용하여 당대의 궁핍한 향촌 사정을 여실히 그려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탄궁가>는 지금까지 정훈의 시가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그의 현실 인식과 문학적 형상화의 방법 등 여러 측면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문학적 형상은 이 시기 정훈의 시가 문학이 성취한 한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정훈의 시가 작품에는 그가 가졌던 당대의 현실 인식과 고뇌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행적」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그는 시가 작품을 통해 ‘우국지정’을 노래하였고, 당대의 혼란한 정치상과 그로 말미암은 정국의 파행을 밀도 높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지난날 자신의 포부를 펼치지 못해 고뇌하는 향촌사족의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고, 현실과 동떨어진 처사적 삶을 동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훈의 작품 세계를 최근의 논의들처럼 정계진출이나 향촌사회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지어진 의도적인 산물로 볼 개연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검토한 바처럼, 정훈의 시가 문학은 혼란한 시대상 속에서 ‘우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향촌사족의 고뇌가 여러 작품에 형상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지하듯 정훈의 시가 작품에서 그 이전 시기 시가 작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문학적 역량이나 또는 그 이후 시기에 전개되는 다채로운 국문시가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현실과 밀착된 그의 작가 의식은 현실 비판적 내용을 시가에 담아내면서 다소 거친

직접 물고기와 새를 잡을 그물을 짜거나 이웃 사람들과 함께 쌀을 구하러 다니는 등 궁핍한 생활을 직접 경험한 바 있다. (經亂之後 無物養親 躬結魚鳥之網 …方兵亂之後 公私竝 竭朝夕之奉繼用無策 遂與鄰友偕往豐饒之邑質米.)

화자의 목소리로 표출하였고, 그가 처사적 삶을 동경하면서 그린 자연의 풍광은 이미 이전 시기의 문학에서 성취해 놓았던 강호 자연의 형상을 펼쳐놓았을 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궁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궁핍’이라는 현실 밀접한 주제를 여러 문학적 장치를 통해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면모는 당대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정훈의 시가 창작 의식을 바탕으로 지어졌다는 점에서 정훈의 시가 문학이 갖고 있는 시가사적 의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과 당대의 혼란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고도의 정신적 우월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연을 단지 완상물로서의 자연으로 보거나 아니면 자연 속에 존재하면서도 자연과 동화하지 못한 채 관념적 자연으로 그려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시기 작가들의 시대적·문화적 상황에 따른 태생적 문제와도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시가 문학의 양상은 비단 정훈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과 온당한 평가는 시가사의 17세기적 경향과 관련지어 앞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주제어(Key words): 정훈의 시가 문학(Jung Hun's poetry), 문학적 형상(literary formation), 현실 인식(reality perception), 향촌사족(noble village family), 인륜(humanity), 우국지정(憂國之情)(patriotism), 우활(迂闊)(UI hwal-ness), 관념적 자연(ideal nature)

참고문헌

- 고순희, 「임란 이후 17세기 우국가사의 전개와 성격」, 『한국고전연구』 2, 한국고전연구학회, 1996.
- 권순희, 「17세기 남원지방 재지사족의 동향과 정훈의 시가」, 『어문논집』 39집, 민족어문학회, 1999.
- 김문기, 「정훈의 <우회국사가> 고찰」, 『국어교육연구』 제31집, 국어교육학회, 1999.
- 김학성,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 류속영, 「정훈 문학의 현실적 토대와 작가의식」, 『국어국문학』 제35집, 1998.
- 박요순, 「정훈과 그의 시가고」, 『승전어문학』 제2집, 승전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73.
- 육민수, 「김득연 문학작품의 특성」, 『반교어문연구』 17집, 반교어문학회, 2004.
- 이상원, 「정훈 시조 연구」, 『우리어문연구』 11집, 우리어문학회, 1997.
- _____, 『조선시대 시가사의 구도와 시각』, 보고사, 2004.
- 정동인 역음, 『경주정씨세고-八松公派』 회상사, 2002.
- 최규수, 「<출새곡>과 <속관동(별)곡>의 작품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온지논총』 제5집, 온지학회, 1999.
- 최상은, 「정훈 가사에 나타난 가문의식과 문학적 형상」, 『한민족어문학』 제45집, 한민족어문학회, 2004.
- 최현재, 「박인로 문학의 현실적 기반과 문학적 지향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 하성래, 「가사문학의 새 거봉」, 『문학사상』 8호, 문학사상사, 1973.5.
- 한창훈, 「박인로·정훈 시가의 현실의식과 지향」,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3.

Review of Perception of Reality Reflected in Jung Hun's Poetry
and its Literary Formation

Kang, Kyung-Ho

Jung Hun, dating from the end of 16th century to early 17th century, was a Korean poet who wrote many works. Until now his works were perceived as intentional writings for his personal success and for improvement as a noble village family. However, it would be proper to view his works as literary works of art written on the basis of reality perception at that time.

Looking at his poetry, it can be seen that he attached importance to humanity, some written with pure patriotism, and some written to express his own concerns living among a confusing era. In addition, through his works, he expressed his own feelings for himself of Uh hwal-ness(迂闊), and yearned for a life of living in nature. Therefore, it cannot be judged that his works were all intentionally made for a purpose.

His works do not show an outstanding or diverse feature compared to periods before and after. However, it should be seen that such literary work of art honestly reflects the writers of the era, and proper evaluation is necessary.

강경호
덕성여자대학교
주소: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295-2 B01
전화번호: 019-697-0194
전자우편: skkukkh@hanmail.net

이 논문은	2006년	10월	30일	투고하여
	2006년	11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6년	12월	30일	간행함